

신제품 코너

도시락반찬, 김밥말이, 부침게로서 특히 적합하며 어린이 간식 술안주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 가격은 2백80g에 2천50원, 5백g에 3천5백원.

어머니 만두

신선한 원료의 풍부한 맛과 어머니의 손맛으로 정성껏 만들어져 누구라도 손쉽게 즐기며 만두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6백75g에 2천원.

뽕빠이 핫도그

남부햄 뽕빠이 핫도그는 소시지에 파우더를 묻혀 정제된 식용유로 튀겨 포장된 위생적인 핫도그로 즐거운 여행이나 경기장의 스낵, 공부하는 수험생, 온 가족의 영양간식으로 이용하시면 아주 좋다.

2백50g에 1천2백원.

동남육가공

「동남맛절로 양념갈비, 불고기」

동남육가공(대표 李錫斗)은 우리 고유의 양념 맛이 살아 있는 「동남맛절로 양념갈비」와 「동남맛절로 양념불고기」 2종을 개발, 시판했다. 「동남맛절로 갈비, 불고기」는 가열 처리 후, 냉각시에도 전혀 영감이 없으며, 부드러운

상태가 지속되어 맛의 변화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동 제품은 도시락용 반찬으로 특히 좋으며, 야외용 등 이용 가치가 많다고.

그 동안 대일 돈육 수출에 주력했던 동사 개발실 李충복이사 팀이 심혈을 기울인 「동남맛절로」 시리즈는 앞으로 2차 가공품 생산 준비의 그 첫 시도로 알려졌다.

희망 소비자 가격은 「동남맛절로 양념갈비」가 4백50g이 2천7백50원, 1kg 4천7백30원이며, 「동남맛절로 양념불고기」가 4백50g에 2천5백30원, 1kg 3천 9백60원.



남부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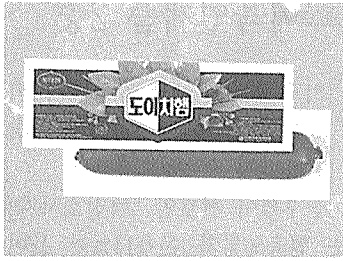
동그랑땡, 불고기햄

직영농장의 신선한 원료육을 사용하여 숙성시켜 구워 낸 프레스햄의 정통제품으로 육하량이 높은 맛과 영양이 뛰어나며, 가정에서 드는 동그랑땡의 전형적인 참 맛을 즐길 수 있는 영양식품, 산뜻한 불고기햄의 참맛을 즐길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고단백 건강식품.

롯데햄·우유

도이치햄

150년 전통의 독일 '슈타인하우스'사와 기술 제휴로 롯데햄에서 만든 구수한 맛의 정통 독일햄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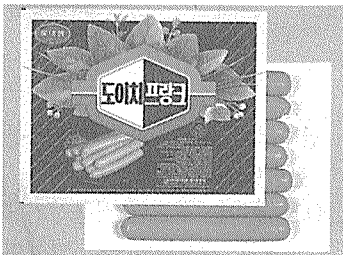


로 맛있는 어깨살 부위를 사용하여 얇게 썰어 그대로 먹거나 살짝 구워내면 독특하고 구수한 햄의 진미를 즐길 수 있다. 반찬, 간식, 술안주 등 각종 요리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1백70g에 1천3백50원, 2백70g에 2천1백원.

도이치프랑크

150년 전통의 독일 “슈타인하우스”사와 기술제휴로 롯데햄에서 만든 정통 독일식 소프트소시지로 부드러운 식감의 구수한 맛이 특징. 살짝 굽거나 끓는 물에 데워 먹으면 소프트한 제 맛을 느낄 수 있다. 어린이 간식, 반찬, 핫도그용 및 기타 요리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희망소매가 2백80g 1천7백원.

원더키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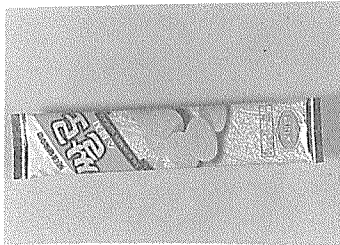
어린이용 만화영화 원더키디 2020의 캐릭터 도입한 어린이 영



양간식용 혼합소시지로 생크림, 분유, 꿀 등을 함유하고 있어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 판촉물로 원더키디 주인공의 레이저스티카 또는 인형이 들어 있다.

희망소매가 60g에 3백20원.

쌀로소시지



“쌀로소시지”는 쌀가루입자와 생크림을 함유한 건강지향의 고급 혼합소시지로 밥반찬과 도시락 반찬에 최적, 특히 순식물성 옥배유를 사용하여 담백하며 깨끗한 맛이 특징이며, 그대로 썰어 내어 간식용으로 사용하여도 좋다.

80g 3백30원, 1백50g 5백50원, 2백70g 1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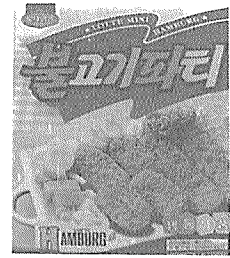
참불고기

구수한 맛을 지닌 본격 김밥용 비엔나로 길게 썰어내어 김밥에 사용하면 크기와 맛이 꼭맞아 더 없이 편리하며 또한 알맞은 크기로 자르면 어떤 요리에도 사용할



수 있는 독특한 형태의 제품이다. 희망소매가 1백80g 1천1백원.

불고기파티



신선하고 연한 돈육에 간장, 참깨 등 갖은 양념을 하여 우리 입맛에 꼭맞는 불고기 맛을 지닌 냉동제품이다. 이제부터는 “불고기파티”의 준비만으로도 전래의 맛을 지닌 불고기를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희망소매가 4백g 2천원.

안성축산

양념 돼지불고기 등 2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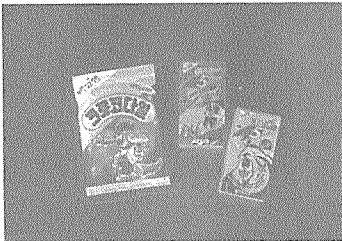
안성축산(대표 孫根洪)은 「안성양념 돼지갈비구이」와 「양념 불고기」2종을 개발 소비자들의 적극 호응을 받고 있다. 동 제품은 냉동으로 하여 야외용이나 가정에서

즉석으로 데워 먹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개발되었으며, 특수 영양 조리하여 맛 또한 일품이라고 한다.

소비자 가격은 「...갈비구이」가 2kg에 1만2천8백원, 3kg이 1만8천6백원이며, 「양념불고기」가 5백g 당 2천6백원이다.

제일제당

‘독수리 5형제’와
‘크로코다일 비엔나’



어린이 영양간식용인 미니소시지 ‘독수리5형제’와 기존 비엔나를 차별화한 ‘크로코다일 비엔나’를 각각 3월 29일과 4월 10일 시장에 선보였다.

독수리5형제는 치즈, 계란, 토마토 등을 사용하여 피자맛을 냈을 뿐 아니라, 인공첨가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 어린이 영양간식으로 적합한 제품이다.

독수리5형제의 권장 소비자 가격은 60g에 350원이다.

크로코다일 비엔나는 돈육과 계육을 주원료로 하여 맛과 영양이 뛰어나며 고기입자가 살아있어 씹히는 맛이 매우 우수하고 씹을수록 고소함을 느낄 수 있으며, 비닐지퍼를 사용하여 보관시 매우

위생적이고 재사용이 편리한 제품이다. 귀여운 새끼악어를 의인화 시킨 포장 역시 소비자에게 친근감을 준다.

크로코다일 비엔나는 150g에 1천1원이다.

진주햄

동그랑땡



우리 고유의 부침개인 땡을 일반 가정에서 간편하고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 동그랑땡과 네모난땡의 동그랑땡을 개발, 시판.

「동그랑땡」은 고기함량이 높고 야채도 함유되어 있어 도시락반찬은 물론 김밥, 그리고 어린이 등의 영양간식 또는 술 안주용으로도 좋아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데 가격은 동그랑땡 1백60g 들어가 8백50원, 네모난땡 2백30g 들어가 1천1백50원.

어육연제품 2종

어육제품인 「백점소시지」와 「오징어맛살」을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진주햄이 선보인 「백점소시지」는 연육56%와 돈육14%가 들어있으며 특히 마가란이 9%나 함유되어 부드럽고 독특한 맛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즉석 또는 후라이하여 영양간식이나 사라다·샌드위치·도시락 반찬용으로 적격이다.

오징어맛살은 싱싱한 명태살에 천연오징어살이 5.6%가 들어있어 각가지 요리에도 적격.

백점 소시지 2백60g에 소비자 가격은 9백50원.

참치 캔 시장 참여



진주햄이 참치통조림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O.K 참치는 최고급 식물성기름과 신선한 야채즙만으로 만들어 방부제나 인공첨가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 뒷맛까지 산뜻하다고. 자라나는 어린이 영양간식, 가족 영양간식에 좋으며, 1백90g 짜리 3종류, 1백g 짜리 1종류 등 모두 4종류이다.

「불고기 줄줄이」



성장기 어린이 도시락 반찬이나 영양간식은 물론 술 안주로도 폭넓게 쓸 수 있는 불고기줄줄이를 개발, 시판. 불고기줄줄이는 위생적으로 엄선된 돈정육과 각종 조미양념류를 이용, 장기간 염지, 숙성시킨 다음 고속 배합기를 사용하여 완전한 에멘전 상태로 배합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 및 열량이 풍부하다고. 1백

90 g 1천1백50원, 5백 g 에 2천9백원, 1kg에 5천6백원.

펍 킨

바브로 햄



서구식 식품인 햄에 쌀밥, 치즈, 야채를 혼합한 「바브로햄」을 개발 시판.

쌀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서구식 주식인 햄에 쌀밥을 혼합 쌀밥의 입자로 살려 만든 바브로햄에는 치즈와 야채까지 곁들여 식사 대용식으로 충분한 영양과 맛을 즐길 수 있다는 것.

특히 햄에 쌀을 가미한 육가공

제품으로는 처음 개발된 「바브로 햄」은 식사대용이나 간식용으로 이용. 바브로햄의 소비자 권장가격은 1백30 g 용량에 9백50원, 2백 g (40 g × 5개들이)은 1천5백원, 4백 g (40 g × 10개들이)은 2천원.

한국식품

동그랑전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한국고유의 맛을 살린 제품으로서 선도 좋은 돈육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영양의 균형을 살렸고, 한국인의 입맛을 찾아 남녀노소 고루 즐길 있는 전통 「동그랑전」을 그대로 살린 것이 특징. 로케트 형은 1백90 g, 2백80 g이며, 네모난 형은 2백30 g 등으로 분류 용도에 맞는 선택을 편리하게 만들었다.